

미친다는 것 (Mad, mad, mad)



강 영 배

본회 학술홍보위원장
국립수의과학연구소 병리진단과장

수의 정신과 (獸醫 精神科) 는 왜 없는 것일까?

세상엔 별 미친 놈도 많다. 그렇기에 의과대학에서는 정신과 (Psychiatry) 전문의 (Psychiatrist)를 양성하여 배출하고 있으며, 종합병원(General Hospital) 뿐만 아니라 정신과 전문 병원 (Psychiatric Hospital)에는 입원실이 모자랄 정도이다.

미친다는 것은 뇌신경 계통에 손상을 받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정신상태가 정상 (normal state)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정상인 것을 정상이 아니라고 우기는 놈도 미친놈이다.

그런데 한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세계의 어느 유수한 수의과대학의 커리큘럼을 뒤져 봐도 '수의 정신과학 (獸醫 精神科學, Veterinary Psychiatry)' 이라는 강좌는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동물 습성학 또는 동물 행동학 강좌 정도가 있을 따름이다.

수의 정신과는 왜 없는 것일까? 그건 모르겠다. 그렇다면, 동물에는 '미치는 병' 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동물에서 볼 수 있는 '미치는 병'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광견병 (狂犬病, rabies)' 과 '광우병 (狂牛病, mad cow disease)' 을 들 수 있다.

사람에 있어서는 '미치는 병'의 많은 예가 비감염성 또는 비전염성인 것으로 심리학적 정서적인 문제와 연결되는데 비하여, 동물에 있어서는 '미치는 병'은 감염성 또는 전염성인 것으로 더욱 무섭고 그 피해가 큰 것이 사실이다.

동물의 '미치는 병'에 관하여 몇가지 생각을 나누어 보기로 하자.

광견병 (狂犬病, Rabies)

광견병 (狂犬病, rabies)이란, 영어로는 <rabies>, 불어로는 <rage>로 표기하며, 여러 국제 기구 즉 국제수역사무국 (國際 獸疫事務局, OIE), 국제식량농업기구 (國際食糧農業機構, FAO), 세계보건기구 (世界保健

機構, WHO)에서 공동으로 지정한 가축의 B급 전염병 (List B Diseases)이다.

Family Rhabdoviridae의 Genus Lyssavirus에 속하는 광견병바이러스가 감염되어 각종 온혈동물에서 흥분과 마비등의 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인체에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 (zoonosis)의 일종으로, 특히 인체에서 대하여는 공수병(恐水病, hydrophobia)으로도 표현한다.

우리나라의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제 1종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광견병의 국내 발생실적을 보면, 1906년 최초 보고된 이래, 지속적인 발생을 보여 왔는데, 1945년까지 매년 200-800두 정도씩 발생 보고된 바 있었으나, 그 후 점차 발생이 감소되어 1970년대까지는 매년 100두 미만의 발생수준이 보고되었다.

과거 약 30년간의 광견병 발생실적을 조사해보면, 69년 6건, 70년 3건, 71년 및 72년 각 25건, 73년 38건, 74년 82건, 75년 91건으로 매년 증가되어 왔으나, 76년에는 10건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77년에는 비발생, 78년 9건, 79년 2건, 80년 5건, 81년 15건, 82년 1건, 83년 비발생, 84년 1건 등으로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85년부터 92년까지는 발생이 없었다.

그러나 93년에 강원도 철원에서 1건이 개에서 보고



된 이래, 다시 지속적인 발생을 보이고 있는데, 94년 27건(개 9, 소 16, 너구리 2), 95년 7건(소 6, 너구리 1), 96년 5건(개 2, 소 3), 97년 19건(개 10, 소 8, 너구리 1)이 확인된 바 있으며, 발생지역은 경기(연천, 포천, 동두천, 파주)와 강원(철원, 화천, 인제, 양구) 등 북부지방에 한정되고 있고, 주요 감염원은 야생 너구리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여기에서 관심있게 보아야 할 것은, 근래 우리나라의 광견병 발생은 개에서 보다 소에서 더 많다는 사실이다. 소가 광견병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미친다 해도 그것은 광우병이 아니고, 여전히 광견병일 뿐이다.

광우병 (狂牛病, Mad Cow Disease)

소 해면형 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이란, 영국에서 1985년에 최초로 확인된 새로운 가축전염병이며, 일명 광우병(狂牛病, mad cow disease)이라고도 부른다. 재작년(1996년) 3월 19일, 영국의 보건장관 스티븐 도렐이, 과거 10년 동안 영국 소에 감염되어 온 소 해면형 뇌증이 사람의 희귀한 뇌 질환인 크로이츠펠트-야콥병(Creutzfeldt-Jakob Disease; CJD)의 새로운 스트레인(vCJD)과 관련성이 있는 증거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영국하원에서 보고한 이래, CNN News 등 세계 각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된 바 있으며, 아직까지 과학적인 증거가 확립된 바는 없지만 새로운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수의학이나 의학적인 사실 확인의 여부를 떠나,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 큰 놀라움과 많은 의문사항을 남겨둔 채, 영국산 소와 쇠고기의 수입금지 조치 등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된 질병이다. 소 해면형뇌증은, 양과 염소에서 발생하는 스크래피, 사슴과 엘크의 만성소모병, 전염성 밍크뇌증, 그리고 고양이 해면형뇌증 등과 함께 동물의 전염성 해면형 뇌증(傳染性 海綿型 腦症,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ies; TSEs)으

로 분류되는 질병이다.

전염성 해면형 뇌증에 대한 병인체는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으나, 프리온(prion)이라는 변형단백질(PrP)에 의하여 유래되는, 나이 먹은 동물 또는 노인에 있어서의, 진행성 퇴행성 폐사성 뇌신경 장애를 나타내는 증후군을 말한다. 아직까지 확실한 병인체가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면역 혈청학적 진단방법도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예방백신의 개발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감염되면 치료대책 없이 100% 폐사되는 세기의 불치병이다.

재작년, 영국에서 광우병과 사람의 vCJD 관련성 문제로 세상이 시끌벅적지근 할 때, 어떤 정말 '미친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환자가 있으며, 멸종한 제주 양에 이미 스크래피(狂羊病?)가 퍼져 있을 수 있다고 헛소리를 떠들어 댄 바 있다.

천만의 말씀이다.

필자를 포함하여 우리 정부의 수의당국에서는 보건당국과의 협의회 또는 매스컴을 통한 대담 등에서 그 문제를 즉시 반박하였다.

그 후 도축우를 중심으로한 전국적인 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는 광우병 또는 그와 유사한 어떤 동물의 전염성 해면형 뇌증도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그 발생 가능성은 절대적으로 희박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광우병에 관련된 업무수행에 대하여, 필자는 1997년 8월, 감사원 감사에서 '우수 모범사례'로 인정을 받아 영광스럽게도 감사원장의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광돈병 (狂豚病, Mad Pig Disease)

구제역(口蹄疫, Foot-and-Mouth Disease; FMD)이란, 국제수역사무국(國際獸疫事務局; OIE)에서 지정한 가축의 A급 전염병(OIE List A Diseases) 15종 중, 첫째로 꼽히는 악성전염병이며, 본래는 소에서 볼 수 있는 전염성 질병이지만 돼지나 양

사슴 코끼리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 偶蹄類; clovenhoofed animals)에서 나타나는데, 체온의 급격한 상승과, 입 혀 발굽 젖꼭지 등에 물집(수포, 水泡; vesicles)이 생기고, 식욕이 떨어져 심하게 앓거나 죽게되는 것이 특징이다. 구제역바이러스는, 미생물 분류학적으로 Family Picornaviridae, Genus Aphthovirus에 속하는 소형의 RNA 바이러스이다.

우리나라의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제 1종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1934년도에 최종보고된 이래 현재까지 비발생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매년 구제역사무국(OIE)에 보고하고, “해외악성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구제역은 거의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구제역이 한 번도 발병되지 않았거나 현재 비발생국으로 인정되는 지역은 북미, 중미,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등이다.

대만은 1930년도의 최후발생을 끝으로 지난 약 67년간 구제역 비발생국으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해(1997년) 3월 19일, 돼지에 다시 구제역이 발생된 바 있으며, 그때 Newsweek지 1997년 4월 7일자에, 대형정지기로 죽은 돼지의 쓰레기 더미를 치우는 처절한 사진자료(로이타 통신)를 공개하면서, ‘Mad Pig’ Disease, FMD virus rattles the nation (구제역바이러스가 전국을 휩쓸다). 달라이 라마가 죽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The Dalai Lama prayed for their souls)고 보도한 바 있다.

실제적으로는, 구제역은 바이러스성 열성 전신성 피부질환의 일종으로, 정신과 질환은 아니며, 다만,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방역당국이나 축주가 미칠 정도로 놀라운 질병일 뿐이다. 구제역 문제와 관련하여 대만에서 살인사건까지 일어났던 것은 사실이다. 대만의 구제역은 그 피해가 정말 너무 심각하였는데, 지난해 7월 16일 현재까지 총 20개 지역의 6,147개의 양돈장에서 4,658,515두가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며 그중 1,011,674두가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총 3,850,746두를 살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2월 6일부터 지역적으로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구제역이 다시 재발하여 금년 2월 현재까지 12개 농장에서 870두를 추가로 살처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중보건의 최일선에 서서

구제역과 관련하여서는, 다행히 우리나라는 1934년 이래 비발생 상태(free state)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필리핀, 대만, 중국 등에서 구제역이 문제시 되고 있으므로 밀수근절 등 잠입방지에 각별히 유념을 하고 있으며, 진단기술 축적과 예방백신 비축 등 일련의 대책을 추진중에 있다. 필자는, 금년 7월 5일부터 10일까지 영국의 버밍햄에서 개최된 제 15차 국제양돈수의학회(International Pig Veterinary Society; IPVS)총회 및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구제역 비발생 실태와 잠입방지 대책, 의사축 확인결과, 방역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 바 있다.

동 모임에서 대만대표들은 자국 내에서의 구제역 발생과 피해에 관한 경험을 발표하였다.

광견병과 관련하여서는 최근에 정부에서 ‘광견병 특별방역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너구리 등 야생동물에 대한 단계적인 광견병 방역관련 시험연구를 착수한 바 있는데, 경기도 및 강원도, 산림청 등의 협조를 받아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관리는 우리들 수의사의 책임이며, 고유권한 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중보건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의사의 업무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모쪼록, 광우병(소해면형뇌증)과 광돈병(구제역)의 국내잠입이 철저히 차단되고, 광견병 특별방역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동물의 ‘미치는 병’이 없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